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준4 제5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1~4] 고전시가

「거창가」 작자 미상

작품 평가

이 작품은 19세기 중반 거창 수령과 아전들의 학정과 수탈을 고발한 현실 비판 가사이다. 수록 지문은 부당하게 부과한 군포를 걷는 과정에서 양반가 아녀자의 자결을 초래한 임장의 만행과,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백성들을 함부로 곤장질하여 죽게 하는 수령의 학정을 고발하고 있다. 화자는 죽은 여인의 혼령이 하는 말을 상상하여 나타냄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수록 지문에서 말한 사건의 내용은 「거창부폐장초(居昌府弊狀抄)」, 즉 당시 거창부의 폐단을 고발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소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담은 것이다.

흉악하고 분한 일을 또다시 들어 보소

정유년[→ 현종 3년인 1837년] 시월 달에 적화면(赤火面)에 변(變)이 났네
우거(寓居,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부처 삶) 양반 김일광이 선무포(選武布, 상민 중 선무군관에 임명된 사람에게 부과되던 군포)가 가당한 말가
→ 타향살이 양반 김일광에게 선무포 [부과가] 가당한 말인가?

▶ 선무군관이 아닌 김일광에게 선무포를 부과한 일이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광이 출타(= 집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나감)한 후 고을 임장(任掌, 조선 시대에, 관아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사람) 포(布) 거둘 제

양반 안채 난입하여 청춘 부녀(婦女) 끌어내니

▶ 부녀자가 거하는 안채에는 외간 남자가 함부로 드나들지 않는 것이 당시의 법도이다. 그런데 임장이 함부로 들어가, 안채에 있던 김일광의 젊은 아내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반상(班常, 양반과 상민) 명분 중한 중에 남녀유별 지엄커든

▶ 임장의 행동이 양반을 존중하지 않은 무례한 것임은 물론, 남녀유별의 예법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광언 패설(狂言悖說, 이치에 맞지 않고 도의에 어긋나는 말) 어찌 감히 두
발부예(頭髮扶曳, 머리털을 붙잡아 끌)하단 말가

→ 말 안 되는 미친 소리[에 더해], 어찌 감히 [부녀의] 머리털을 잡아끈단 말인가?

▶ 부당한 선무포를 징수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의 아내에게 막말을 내뱉고 심지어 그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었으니 임장의 만행은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

▶ 참고 이 상황에 대해 「거창부폐장초」는 당시 임장이 이 여인의 손을 잡기도 했다고 전하면서, 그런데도 둘러서 있던 주민들이 고을 임장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전혀 말리지 못했다고 하였다. 정황으로 미루어 보자면, 임장이 했다는 '광언 패설'은 욕설만이 아니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까지 포함된 막말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겠다.

장하다 저 부인네 이런 욕 당한 후에

아니 죽고 쓸데없어 손목 끊고 즉사하니

▶ 화자는 '욕 당한' '부인네'의 자결에 대해 '장하다'라고 평가한다. 오늘날과는 다른,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판단이겠다.

백일(白日)이 빛을 잃고 청산(靑山)이 욕열(欲烈, 무너지려 함)이라

→ 해가 빛을 잃고 청산이 무너지려 하네.

▶ '부인네'의 자결에 온 천지가 슬퍼한다는 뜻이겠다.

〈백년해로 삼생 언약(三生言約) 뜬구름(= 덧없는 세상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었어라

→ 백년해로하자던 삼생[→ 전생, 현생, 내생]에 걸친 언약이 뜬구름이 되었구나.

▶ 〈 〉 부분은 화자의 상상을 바탕으로 죽은 여인이 자신의 심정을 말한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임장의 만행이 한 여인의 삶뿐만 아니라, 백년해로를 약속한 부부의 삶마저 파괴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뜻이다.

만리전정(萬里前程, 만 리까지 펼쳐진 앞길이라는 뜻으로, 젊은이의 희망이가 득 찬 앞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내 목숨[→ 발화자가 죽은 '부인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칼 아래 죽단 말가

→ 살날 많은 이내 목숨 한칼 아래 죽었다단 말인가?

흉악하다 임장 놔야 너도 또한 인류(人類)어든

→ 흉악하다 임장 놔야 너도 사람인데

여인 정절(貞節) 굳은 마음 네가 감히 능멸할까

→ 정절을 지키려는 여인의 굳은 마음을 네가 감히 능멸했느냐?

만경창과 물을 지어 나의 분한 설욕코자

→ 한없이 넓은 바다 같은 큰물을 일으켜 나의 분함을 갚아 볼까.

▶ 어떻게 하면 분함이 풀릴까 생각해 보는 거다.

남산 녹죽(綠竹) 수(數)를 센들 네 죄목에 더할쏘냐

→ 남산의 푸른 대나무의 수효를 센들 네 죄목보다 더 많겠느냐?

▶ 남산의 [뽕뽕한] '녹죽'의 숫자와 '네 죄목'의 숫자를 비교하여 임장의 죄목이 더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열녀정문(烈女旌門, 열녀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고사하고 대사(代死,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일)도 못 시키니

→ 열녀정문은 고사하고 [살인자를] 사형도 못 시키니

▶ 열녀정문을 세워 주기는커녕, 임장을 사형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화자는 임장의 죄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시 살인자에게 가해지던 형벌인 사형이 그의 죄에 합당한 벌이라 여기는 것이다.

두견 소리 세우(細雨, 가랑비) 중에 영혼인들 아니 울까

→ 두견새 [우는] 소리 가랑비 속에 [울리니], [죽은 여인의] 영혼인들 아니 울까?

▶ 두견새 울음소리와 가랑비를 통해 슬픈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죽은 이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금년 사월 본읍 우박 그 원한이 아닐런가

▶ 화자는 '금년 사월 본읍'에 우박이 내린 일이, 억울하게 죽은 김일광 처의 원한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면서, 그 원통함을 빨리 풀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여기까지가 김일광 처의 죽음에 대해 말한 부분이다.

▶ 참고 사건이 일어나고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1839년 5월(음력 4월) 기상 이변으로 거창에 주먹보다 큰 우박이 쏟아져 민가가 무너지고 사람과 가축이 다 수 죽었다고 한다.

학정(虐政, 포악하고 가혹한 정치)도 하거니와 남살(濫殺, 죄가 있고 없고 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죽임) 인명(人命) 어인 일고

→ 가혹한 정치도 자행하고 있지만 사람을 함부로 죽임은 어인 일이고?

한유택 정치광과 전대부 강일상아

너희들은 무슨 죄로 곤장 아래 죽단 말가

→ 너희들은 무슨 죄가 있어 곤장 아래에서 죽었다단 말인가?

▶ 여기 호명된 한유택, 정치광, 전대부, 강일상은 모두 장살(杖殺, 형벌로 매를 쳐서 죽임)당해 죽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화자는 그들이 죽을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 달 만에 죽은 사람 보름 만에 죽은 백성

오륙 인(五六人) 되었으니 쌓인 원한 어떠할꼬

▶ 앞에서 이름을 열거한 네 사람 외에, 매 맞는 현장에서 죽지는 않았으나 매를 맞은 뒤 한 달이나 보름 만에 죽은 백성도 대서섯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거창 수령이 곤장질을 얼마나 함부로 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다.

불쌍타 저 귀신[→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넋]아 가련하다 저 귀신아
용천검(= 옛날 중국의 보검) 비껴들고 일산(日傘,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세우
는 큰 양산) 앞에 호위 서며

➡ 거창 수령 앞에서 호위하던 군관들의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아침저녁 개폐문(開閉門, 문을 열고 닫음)에 북과 피리 울어 주니

➡ 거창 관아의 문을 아침저녁으로 열고 닫을 때에 북을 치고 피리를 부는 것
을 나타낸 부분이다. 군관들의 호위와 함께, 거창 수령의 위세 등당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거
창 수령은 여전히 평평거리며 잘 자내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 편월(空山片月, 사람이 없는 산에 뜬 조각달) 조각달과 사시나무
떨기 중에

➡ 빈산의 적막함과 조각달의 쓸쓸한 느낌, 미풍에도 떨리는 사시나무의 모습
을 통해 스산하고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참고] 두려움에 질린 상태를 나타내는 '사시나무 떨듯 한다.'라는 속담처럼,
사시나무는 미풍에도 나뭇잎이 파르르 떠는 모습을 보인다. 고대 중국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묘지 주변에 사시나무를 심게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살아 있을
때처럼 죽어서도 권력자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으라는 뜻을 담은 것이라
는 말도 있다. 한낱 구실아치에 불과한 임장의 황포도 말할 수 없는데, 거창 수
령의 위세야 오죽했을까 싶다.

원통타 우는 소리 재가(在稼, 당시 거창 수령이었던 이재가를 가리킴) 신명
(身命) 온전할까

→ [억울하게 죽은 넋들이] 원통하다 우는 소리에 이재가의 목숨이 온전할 수
있을까?

➡ 백성들을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든 장본인인 거창 수령이 결국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비명(非命,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에 죽은 원한 염라국에 상소하니

→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비명에 죽은 원한을 염라국에 상소하니

➡ 살아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거창 수령의 '학정'과 '남살'을 처벌하지도 막
지도 못하니, 화자는 원한들이 염라대왕에게 상소하는 상황에 대한 상상을 전
개한다.

염라대왕 답하시되 너의 처지 가련하다

아직 물러 기다리면 특히 엄히 다스리리라

➡ 염라대왕의 대답을 빌려, 죽은 이들에 대한 연민과 거창 수령 이재가에 대
한 비판을 드러내는 것이겠다. '기다리면'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현실에서
의 즉각적인 처벌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아차(夜叉,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죄인을 벌하는 악귀) 나찰(羅刹, 염라대왕
의 명을 받아 죄인을 벌하는 악귀) 쇠사슬로 뉘 분부라 거역할까

➡ 아차와 나찰이 염라대왕의 명에 따라 수령과 그 수하들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 저승 지옥 중에 철산옥(鐵山獄)이 제일 중(重)타

➡ '철산옥'이라는 지옥이 지옥들 가운데서도 제일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진(秦)의 조고(= 진나라 역사에서 간신으로 꼽히는 인물) 송(宋)의 진회
(= 송나라 역사에서 간신으로 꼽히는 인물) 다 그곳에 갇혔으니

여로부터 탐관오리 철산옥을 면할쏘냐

➡ 화자가 조고와 진회를 거론한 것은, 거창 수령이 이들 간신배 못지않은 탐
관오리이며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참고] 조고와 진회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조고는 진(秦)나라의 환관이었다.
진시황은 태자 부소를 후계자로 지목했으나, 조고의 음모로 부소는 자결하고
호해가 황위에 올랐다. 이후 4년 만에 호해마저 조고에 의해 강제로 자결하게
되고, 결국 진나라는 멸망하고 만다. 또 진회는 송(宋)나라의 재상이었다. 그는
금(金)나라와 맞서 싸우던 명장 악비(岳飛)를 모함하여 죽게 한 후에 금나라와
굴욕적인 화친을 맺고, 이후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고 마구 휘둘렀다.

[5~10] 기술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

지문 평가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적용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기술 지문의 전형이
다.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적극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너지기 쉬운 지문이니 주의하자. 나아가 굉장
히 치밀하게 문맥을 담아내고 있는 글이기도 하다. 지문 분석의 마지막 대목에
특히 주목하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컴퓨터 공학 -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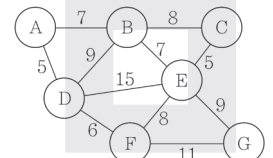
자료 구조, 정점, 간선, 그래프, 가중치, 행렬,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 트리, 경로,
사이클, 순환 그래프, 신장 트리, 최소 신장 트리, 크루스칼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종류 신호, 변형 크루스칼 알고리즘

문단 1 컴퓨터 공학에서의 자료 구조 - 그래프

1) 컴퓨터 공학에서는 현실의 상황을 **자료 구조**의 형태로 저장하여
활용한다.

① **맥락 짚기** 간단해 보이지만 지문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핵
심 문장이다. 이 지문은 컴퓨터가 '현실 상황 → 자료 구조'를 '저장'하고 '활용'
하는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겠다.

2) A부터 G까지의 건물들을 <그림>에
서처럼 통신선으로 연결하여 인접 건
물들을 거치면서 건물 간 통신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



<그림>

자. 각 건물을 **정점**, 통신선을 **간선**이
라 할 때, 정점들과 간선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자료 구조를 **그래프**
라 한다. 각 간선에는 **통신선의 길이**나 **유지비** 등과 같은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해해 보자. 현실에서는 통신선으로 연결된 실제
건물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복잡하게 자리하고 있겠지만, 컴퓨터 공학에서는
정점과 간선을 기본 **요소**로 하는 **그래프**로 이를 구조화한다. 그래프의 **각 간
선**에는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는데, <그림>을 확인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
겠다.

➡ '통신선의 길이'나 '유지비'라는 설명에 주목했을 때 가중치가 작을수록 선호
될 것이라는 예상 또한 가능하다.

문단 2 자료 구조의 저장과 활용

1) 컴퓨터는 <그림>과 같은 상황을 **행렬**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참고로 A, B, C와 그 사이 간
선만 행렬 형태로 변환하면 <표>와 같다. (A, B)
와 (B, A)에는 가중치 7이 저장되며, 간선이 존재
하지 않거나 (A, A)처럼 간선이 존재할 수 없는
칸은 비워 두는 것이다.

	A	B	C
A		7	
B	7		8
C		8	

<표>

➡ 컴퓨터가 문단과 같은 <그림>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은 아니란다. 지문에

서는 <그림>의 일부분인 A, B, C와 그 사이 간선을 건본으로 제시해서 그래프를 행렬 형태로 변환하는 방식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해 보는 차원에서 <그림> 전부를 행렬 형태로 변환해 보면 다음과 같겠다.

	A	B	C	D	E	F	G
A		7		5			
B	7		8	9	7		
C		8			5		
D	5	9			15	6	
E		7	5	15		8	9
F				6	8		11
G					9	11	

2) 그리고 **특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 낸다. 예를 들어 컴퓨터는 가장 적은 수의 통신선을 사용하여 모든 건물들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면서, 유지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경우와 같이 가중치의 합이 최소화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요청을 일반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겠다. 이어서 나오게 될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따라갈 때 이를 의식해야겠다.

- ① 가장 적은 수의 간선으로 모든 정점들이 이어지도록 할 것
- ② 가중치의 합이 최소화될 것

❶ **맥락 짚기** 문단에서 컴퓨터가 ‘저장’하는 방식을 설명했다면, 문단2에서는 컴퓨터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활용과 관련된 설명이 이어질 것 같다.

문단 3 최소 신장 트리

1) **트리**란 어떠한 두 정점을 택하든 정점 간 경로가 반드시 존재하면서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말한다.

➡ 중요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트리’는 문단과 같은 그래프에 속한다. 여러 형태의 그래프 중에서 몇몇 특성을 지닌 것들이 ‘트리’이겠다.

2) **경로**는 정점들과 간선들을 거쳐 가며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말하며, ……

➡ ‘경로’에 대한 설명이다. 단어 뜻만으로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가령 <그림>에서 A에서 B에 도달한다고 해 보자. ‘A-B’, ‘A-D-B’, ‘A-D-E-B’… 등 많은 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길들이 ‘경로’가 되겠다.

3) …… **사이클**은 한 정점에서 시작하여 정점들과 간선들을 거쳐 처음의 정점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경로를 말한다.

➡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그림>에 적용해서 보자. ‘A-B-D-A’와 같이 A에서 시작해서 정점들과 간선들을 거쳐 다시 A로 돌아오는 경로가 사이클이 되겠다.

❶ **주목** 트리는 두 정점 간의 경로는 존재하되 사이클은 존재하면 안 된다. 정리하면 ‘트리’는 모든 정점들 간의 경로가 존재하되, 그러한 경로가 딱 한 가지뿐인 그래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점 A와 B 사이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의 경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림>은 사이클이 존재한다. 즉 <그림>의 그래프는 트리라고 할 수 없다.

4) 사이클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인 **순환 그래프**에서는 두 정점 간에 두 개 이상의 경로가 존재할 수 있지만 **트리는 두 정점 간에 하나의 경로만 존재한다**.

➡ <그림>은 ‘순환 그래프’에 해당하겠다. ‘트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겠다.

	순환 그래프	트리
사이클 유무	○	×
두 정점 간 경로	1개 이상	딱 1개

5) 보통 하나의 복잡한 순환 그래프에서 몇몇 간선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모양이 각기 다른 여러 형태의 트리들을 도출할 수 있다.

➡ <그림>에서 몇몇 간선들을 없애면→ 그로 인해 사이클이 전부 제거되면 트리가 나올 수 있단다. 물론 어떤 간선을 없애느냐에 따라 트리의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 있겠다.

6) 그중 **모든 정점을 포함하면서 간선의 수가 가장 적은 트리를 신장 트리**라 한다. 신장 트리를 구성하는 간선의 개수는 항상 정점의 개수보다 1만큼 작다.

➡ 그래프에서 도출할 수 있는 ‘트리’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간선으로 이루어진 트리를 ‘신장 트리’라 한다. 문단2-2)의 조건 ①을 떠올렸다면 훌륭하다.

➡ 이때 신장 트리의 간선 개수는 정점의 개수에서 -1을 해도 구할 수 있다. 모든 정점들을 최소의 간선으로 잇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그림>에서 신장 트리를 도출했을 때 해당 신장 트리의 간선 개수는 6개가 되는 것이다.

7) 신장 트리도 여러 형태가 도출될 수 있는데, **최소 신장 트리**는 신장 트리들 중에서 가중치의 합이 최소인 트리이다.

➡ 여러 형태의 트리가 도출될 수 있었듯이 신장 트리도 여러 형태가 도출될 수 있다. 그중 가중치의 합이 최소인 트리를 ‘최소 신장 트리’라 한다.

➡ 문단2-2)의 조건을 다시 끌고 오면 이렇겠다.

- ① 가장 적은 수의 간선으로 모든 정점들이 이어지도록 할 것: 신장 트리
- ② 가중치의 합이 최소화될 것: 최소 신장 트리

❶ **맥락 짚기** ‘최소 신장 트리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트리 → 신장 트리 → 최소 신장 트리’까지 연결해서 설명했다. 흐름이 잘 그려졌다면 이제 순환 그래프에서 어떻게 최소 신장 트리를 도출하는지, 그 ‘알고리즘’이 남아 있겠다.

문단 4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통한 최소 신장 트리의 도출

1) <그림>의 상황에서 가장 적은 수의 통신선을 사용하여 모든 건물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가중치의 합도 최소화되는 결과를 얻는 것은, <그림>에서 최소 신장 트리를 도출해 내는 것과 같다.

➡ 이미 충분히 살펴본 내용들이다.

2) 이를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트리에 포함될 간선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되, 사이클이 형성되도록 하는 간선을 선택에서 배제하여 트리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다.

➡ 최소 신장 트리를 도출하는 여러 방법들 중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다.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선택하면서 사이클의 형성을 피한다면 최종적으로 최소 신장 트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규칙은 정리해 두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규칙>

- 1.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순차적으로 선택함
- 2. 다만, 그로 인해 사이클이 형성될 경우에는 그 간선을 선택하지 않음

3) 예컨대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AD, CE 중 간선 AD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다음 순서로 간선 CE가 선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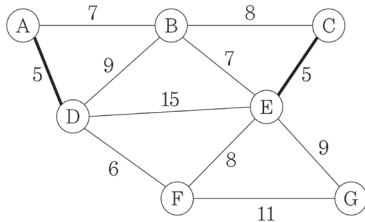
❶ **맥락 짚기** 지문의 <그림>에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소 신장 트

리를 도출하고 있다.

➡ 우선 간선들을 가중치가 작은 순서대로 정리해야겠다. 즉 이 순서에 따라 간선들이 선택될 것이다.

가중치	5	6	7	8	9	11	15
간선	AD CE	DF	AB BE	BC EF	BD EG	FG	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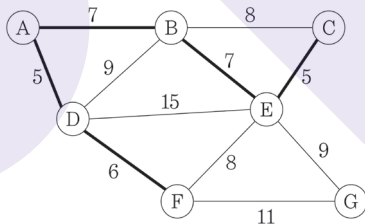
➡ 먼저 가중치가 5인 AD와 CE 중에서는 AD가 선택된다. 물론 이때 CE가 대신 선택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가 달라질 이유는 없다. 선택되는 순서가 CE, AD로 달라질 뿐이지, 결과적으로 두 간선이 전부 선택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4) 이어서 간선 DF, AB, BE의 순으로 선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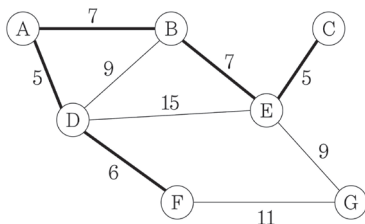
➡ 가중치가 6인 DF와 가중치가 7인 AB, BE가 선택된다는 얘기가. 이때 눈치가 빠른 학생들이라면……

❗ **주목** '선택될 수 있다.'라는 표현에 눈에 들어왔을 거다. 사실 여기서는 간선 DF, BE, AB의 순으로도 선택될 수 있다. AB, BE의 가중치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3처럼 그중 하나가 먼저 선택되었다고 가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선택되는 간선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아직 모든 정점들이 이어지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사이클이 형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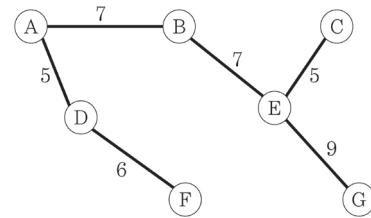
5) 다음 순서는 가중치가 8인 간선 BC 혹은 EF인데, 이들 간선이 선택되면 사이클이 만들어지므로 이들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 그렇겠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사이클이 형성된다. 트리에는 사이클이 없어야 한다.



6) 다음에 간선 EG가 선택되면 모든 정점들이 하나의 트리에 포함되므로 이를 **알고리즘의 종료 신호**로 삼아 나머지 간선들을 버리고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이렇게 선택된 간선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최소 신장 트리이다.

➡ 그다음으로 가중치가 낮은 EG가 선택된다. 물론 BD의 가중치도 9이지만, 이 경우에는 사이클이 형성되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다.



➡ 이렇게 '최소 신장 트리'가 완전히 도출되었다. 도출된 최소 신장 트리의 간선을 세어 보자. 6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문단3~6)]. 이쯤에서 좀 더 구체적인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규칙을 정리해 보자.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규칙>

1.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순차적으로 선택함
2. 이때 가중치가 동일한 간선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함
3. 다만, 그로 인해 사이클이 형성될 경우에는 그 간선을 선택하지 않음
4. 모든 정점들이 하나의 트리에 포함될 때까지 1~3의 과정을 반복함

문단 5 변형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최소 신장 트리의 개수

1) 그래프에서 간선을 제거하는 방식인 **변형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간선들 중 최대 가중치의 간선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며 사이클들을 없애는 방법이다. 다만 제거했을 때에 그래프가 두 덩어리로 조각나는 간선의 경우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규칙[→ 그래프가 두 덩어리로 조각난다면 모든 정점들이 연결되지 않게 된다.]을 따른다.

➡ 초점이 전환되어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변형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자.

<변형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규칙>

1. 최대 가중치의 간선부터 순차적으로 제거
2. 그래프를 두 덩어리로 조각내는 간선은 그대로 둠

❗ **주목** 지문에서 소개한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변형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겠다.

크루스칼 알고리즘	변형 크루스칼 알고리즘
•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부터 선택함 • 사이클을 형성하는 간선은 선택 ×	• 가중치가 가장 큰 간선부터 제거함 • 그래프를 두 개로 조각내는 간선은 제거 ×

2) 한편 그래프에서 간선들의 가중치가 모두 다른 값일 때 최소 신장 트리는 하나만 도출된다. 가중치가 같은 간선들이 여럿 있을 때에는 형태가 다른 최소 신장 트리가 하나 이상 도출된다.

➡ 일단 정리하자.

<도출 가능한 최소 신장 트리의 개수>

- 간선들의 가중치가 모두 다른 값: 하나
- 가중치가 같은 간선들이 여럿 있음: 하나 이상

➡ 이때 '간선들의 가중치가 모두 다른 값'일 때 최소 신장 트리가 단 하나만 도출되는 이유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원리를 떠올리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들부터 하나씩 선택하는 상황에서, 가중치가 모두 다른 값일 때에는 항상 동일한 순서대로 간선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출되는 '최소 신장 트리'도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중치가 같은 간선들이 여럿 있을 때'에는 상황이 다르다. 가중치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선택되는 간선들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 도출되는 '최소 신장 트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 이상일 수 있다].

❗ **주목** 따라서 지문의 결론을 근거로 <그림>의 경우 하나보다 더 많은 '최소 신장 트리'가 도출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지문을 표면으로만 이해한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선지로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림>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같은 간선들이 여럿 있음'에도 그때그때 선택되는 간선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단4의 내용을 다시 살펴본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이 아니라] 항상 하나의 최소 신장 트리가 도출된다.

[16~21] 인문 통합

결과주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

지문 평가

(가)는 '전통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또 다른 '공리주의'들을 소개한다면 (나)는 모든 공리주의를 포괄하는 '결과주의'를 비판하는 '윌리엄스'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관점들끼리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주어진 예시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적어도 글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분하게 읽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철학 - 결과주의, 공리주의

전통적 공리주의, 결과주의, 쾌락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행위, 규칙 공리주의, 윌리엄스, 행위 공리주의, 확장된 책임, 도덕적 정체성

(가)문단 1 결과주의

1)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여기는 전통적 공리주의는 ……

➡ '전통적 공리주의'의 관점이다. 어떤 행위에 의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그게 바로 옳은 행위, 즉 도덕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2) …… '행위의 옳음'이 '행위 결과의 좋음'에 의존한다고 보는 결과주의에 뿌리를 둔다. 결과주의의 포기는 공리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서, ……

➡ '결과주의'에 따르면 행위의 결과만이 행위 자체의 옳음을 결정한다. 바꿔 말해 과정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가 된다. "우리는 비록 실패했으나, 그 과정만큼은 보람찼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결과주의인 셈이다.

➡ 이러한 '결과주의'는 전통적 공리주의뿐 아니라 공리주의 자체의 전제에 해당한다. 그렇다는 건 결과주의에 뿌리를 둔 다양한 공리주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뜻일 텐데……

3) …… 결과주의를 계속 견지하려는 철학자들에 의한 전통적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결과주의의 틀 안에 있는 다양한 공리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❶ **쾌락 질기** 결과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 공리주의와는 구별되는, 또 다른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보자고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관점 요소에 주목할 준비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결과주의'의 틀 안에 머물게 되는지 파악할 준비를 하면서 넘어가자.

(가)문단 2 전통적 공리주의와 선호 공리주의

1) 전통적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기 위해 행위가 낳는 '행복'의 정도가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행복은 감각으로서의 '쾌락'이나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전통적 공리주의는 곧 쾌락 공리주의인 것이다.

➡ '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아야 그 행위는 옳은 것이고, 그중에서도 '전통적 공리주의'는 '결과의 좋음의 기준'을 행복의 정도에 대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본 거다. '쾌락 공리주의'라니, 참 어울리는 이름이다. '쾌락 공리주의' = 전통적 공리주의로 묶어 주자.

2) 그런데 감각적 쾌락을 좋은 것 또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한 운동선수가 가상 현실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험을 하며 실제 금메달리스트와 똑같은 정도의 쾌락을 느낀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한 쾌락은 가치 있는 것일까?

➡ '쾌락 공리주의' = 전통적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 '쾌락 공리주의'에 따르면 가상 현실의 감각적 쾌락이나, 실제 금메달리스트의 감각적 쾌락이나 동일한 정도의 행복으로 계산될 것이다. 가상 현실에서의 경험과 실제 현실에서의 경험이 똑같이, 옳은 행위로 취급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비판이다.

3) 선호 공리주의에 따르면 가치 있는 것은 금메달 획득에 동반하는 쾌락이 아니라 금메달 획득이라는 그의 소망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다. 선호 공리주의는 이처럼 욕구 또는 선호가 만족되는 사태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쾌락이 아니라 '선호의 만족'을 최대화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인 것이다.

➡ '선호 공리주의'는 쾌락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선호의 만족'이 결과의 좋은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가상 현실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실제 금메달을 따는 것만큼 가치 있는 행위는 아니다. 그 운동선수의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소망을 실제로 만족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 주목 이때도 '선호의 만족'은 어떤 행위가 낳은 것이다. 즉 선호 공리주의는 쾌락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결과주의에 뿌리를 둔다[문단1-2].

(가)문단 3 전통적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1) 한편 전통적 공리주의자가 '행위의 결과'를 말할 때의 행위는 그것의 옳음 여부가 관심거리인 실제적인 구체적 행위이다.

❗ 맥락 짚기 문단2에서는 '선호 공리주의'가 '전통적 공리주의'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전통적 공리주의' → 비판의 대상이 '결과'의 좋은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설명하였다면, 이번에는 '전통적 공리주의'가 무엇이 결과에 대하여 좋은을 계산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문단에서 등장할 공리주의 → '규칙 공리주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적 공리주의를 비판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졌다.

	선호 공리주의	전통적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문단2	'전통적 공리주의'의 '결과'의 <u>좋은</u> 의 기준'에 대해 비판하였음		
문단3		'전통적 공리주의'가 무엇이 결과를 고려하는지에 대하여 비판할 가능성이 높음	

2) 그러나 '구체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좋은 또는 이익의 계산은 종종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충돌하는 결론을 낳는다. 가령 각기 다른 장기를 이식받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 5명에게, 의사가 건강 검진을 받으려 온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떼어 내 이식하는 가상 상황을 상상해 보자. 전통적 공리주의에 따른 계산은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수술 행위가 옳다.'라는 결론[→ 1명은 불행해지지만 5명은 행복해지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성립함]을 낳는다.

➡ 우리의 상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도덕적 행위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도덕적 행위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거다.

3) 이에 규칙 공리주의는 '구체적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규칙 수용에 따른 결과'가 최선의 결과일 때에 그 규칙에 따른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들이 '의사는 장기 이식이 이익을 최대화한다고 믿는 경우에,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그의 동의 없이 이식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그 희생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도 있으니]. 이러한 결과는 분명히 재앙이므로,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그 수술은 옳지 않은 행위라는,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른다.

➡ '규칙 공리주의'는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행위라도 결과만 좋으면 해도 된다는 전통적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적인 구체적 행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규칙 수용'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런 얘기가. '전통적 공리주의'처럼 당장의 수술이라는 '실제적인 구체적 행위'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그 행위의 결과로서 '불행해지는 사람과 행복해지는 사람의 비율'은 1:5가 되기 때문에 수술은 '옳은 행위'가 된다. 그러나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규칙 수용의 결과는 하연튼 모든 사람의 불행이다. 따라서 그러한 규칙을 따르는 수술은 '옳지 않은 행위'가 된다.

❗ 주목 물론 이때에도 '규칙 수용에 따른 결과'가 최선인지를 따진다는 점에 주목하자. 규칙 공리주의 역시 어디까지나 결과주의에 뿌리를 둔다는 이야기 대[문단1-2].

(나)문단 1 결과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

결과주의에 따르면 '행위의 옳음'은 어떤 사태의 좋은으로부터 도출된다. 그 사태가 '구체적 행위의 결과' → 전통적 공리주의, 선호 공리주의 이든, '사람들의 규칙 수용에 따른 결과' → 규칙 공리주의 이든 상관없이 그러하다. 이러한 결과주의 자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철학자로 윌리엄스가 있다.

❗ 맥락 짚기 (가)에서는 결과주의의 틀 안에서 '전통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주장들을 살펴봤다면, (나)에선 결과주의 자체 → 결국 (가)의 모든 공리주의들을 비판하는 주장을 살펴보려나 보다.

(나)문단 2 행위 공리주의

1) 윌리엄스에 따르면 구체적 행위의 결과에 관심을 두는 전통적 공리주의와 같은 행위 공리주의, 즉 규칙 공리주의에 속하지 않는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일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행위자의 중개를 통해 일어나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결과를 동등하게 다룬다. 행위 공리주의는 사태 자체에 대해 좋고 나쁨의 가치를 따지면서 세계가 어떤 사태들로 이루어지는지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 이때 '행위 공리주의'는 (가)의 '전통적 공리주의'와 '선호 공리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겠다.

➡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나의 행위의 결과와 다른 사람의 행위의 결과는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가' 무슨 행위를 '왜' 일으켰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2) 그래서 행위 공리주의를 따를 때, 나는 내가 직접 일으킨 일뿐만 아니라 내가 허락한 일이나 내가 막는 데에 실패한 일에 대해서도 [→ '행위 공리주의'는 그로 인한 사태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똑같은 정도로 책임을 지는, 이른바 '확장된 책임'을 갖는다. 행위 공리주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낸 자가 나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 내가 직접 일으킨 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단순히 허락한 일, 혹은 막으려다 실패한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라는 건 좀 억울하다.

➡ 그러나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한 '사태'에만 관심을 두므로, 내가 주체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 발

생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처럼 나의 생각과 무관하게 책임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확장된 책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겠다.

(L)로단 3 확장된 책임의 문제점

윌리엄스는 행위 공리주의가 요구하는 '확장된 책임'이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다음의 가상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 군수 산업체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곤궁한 화학자 갑에게 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일자리를 제안하였다. 자신의 삶의 기획(企劃)에 화학 무기 개발에 대한 도덕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갑이 일자리를 거부하면, 그 일자리는 무기 개발에 거부감이 없는 을에게 할당될 것이다. 이를 잘 아는 갑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

▶ 이때 일자리를 받아들인다면 갑이 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거부한다면 을이 화학 무기를 개발하게 될 텐데…… 행위 공리주의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만 좋고 나쁨의 가치를 따지게 된다. 행위의 옳음을 판단할 때 '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행위'가 '갑'에 의한 것이지, '을'에 의한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애가다.

▶ 문제는 '갑'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데'에 있다. 갑의 '삶의 기획'에 따르면 도덕적 거부감에 의해 이러한 일자리를 거부하는 게 옳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그러한 거부감이 없는 을에 의해 화학 무기가 개발될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L)로단 4 윌리엄스의 행위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1)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갑은 일자리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갑은 선택 과정에서 행위의 결과인 인과적 만족 체계를 고려할 텐데, 특히 일자리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을에 의해 더 강한 위력의 화학 무기가 개발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될 것이다.

▶ 갑은 자신이 일자리를 수용할 때의 결과→ '갑'은 도덕적 거부감을 감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화학 무기가 개발됨'가 수용하지 않을 때의 결과→ 강력한 화학 무기가 개발됨'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더 나은 사태를 초래하기 위해 갑은 일자리 제안을 수용해야만 한다.

2) 윌리엄스는 행위 공리주의에 따른 결론은 갑에게 자신의 삶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인격으로서의 **'도덕적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인과적 만족 체계를 고려한 갑의 선택은, 그 인과적 만족 체계에 다른 행위자도 개입되는 경우에 자신의 삶의 기획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의 삶의 기획에 의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이렇게 갑이 일자리를 수용하는 것은 갑 자신의 인격이나 곤궁함을 해결하려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이 일자리를 수용하지 않을 때 을이라는 다른 행위자에 의해 벌어질 결과까지 고려한 것이다.

▶ 윌리엄스는 이런 상황에서 갑이 '도덕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도덕적 정체성'은 개인의 삶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인격이므로, 갑은 인격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거다.

3) 그[→ 윌리엄스]는 이것이 결국 갑을 '갑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기획'이라는 입력과 '가장 적합한 결정'이라는 출력 사이의 비인격적 통로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였다.

▶ 멋진 표현이다. 윌리엄스의 입장에서 갑이라는 '인격체'는 그저 '결과'의 '옳음'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인격적 통로'로만 쓰인 것이다. 행위 공리주의는 이처럼 실재하는 개인의 인격이나 정체성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결과를 낳는다.

▶ 이렇게 생각하면 '입력'과 '출력'이라는 표현도 이해가 된다. 행위 공리주의를 따르는 결정이란 마치 컴퓨터의 알고리즘처럼, 입력된 값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출력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겠다.

(L)로단 5 윌리엄스의 규칙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1) 한편 윌리엄스에 따르면 규칙 공리주의는 개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신념이나 삶의 기획을 고려하지 않는 초월적인 관점에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규칙만을 따진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

▶ **맥락 짚기** 지금까지 비판한 행위 공리주의는 규칙 공리주의를 제외한 다른 공리주의이다(문단2~4). 여기서는 마지막 남은 규칙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 첫 번째 비판이다. 한마디로 '규칙 공리주의'는 각각의 개인들이 갖는 '신념'이나 '삶의 기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수용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세계'를 떠올려 보자. 정말 비현실적이다.

2) 더욱이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윤리적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주의적 신념을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규칙 공리주의자는 공리주의적 판단에서 벗어나 의무주의적 신념을 가질 것을 권하는 자기 반박적인 결론을 갖는다.

▶ 두 번째 비판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규칙을 수용한 결과'가 최대의 이익을 낼 때 그러한 규칙을 따르는 '행위'가 옳다고 여긴다. 만약에 그 '행위'가 결과주의의 정반대에 있는 의무주의에 따른 행위라 하더라도 결과의 '옳음'을 극대화한다면 '의무주의는 옳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 결국 규칙 공리주의에는 '공리주의적 설명'에 의해 '공리주의적 신념'은 틀리고 의무주의적 신념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자기 모순적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다.

이감

위조품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

지문 평가

중심 개념에 해당하는 '해제'와 '취소'의 법적 의미 각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각각의 조항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러지 못했다면 23번 문제의 ⑤번 선지나 25번 문제 <보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계약 해제, 취소

매도인, 매수인, 손해 배상의 책임, 매매 목적물, 하자 담보 책임, 해제, 의사 표시, 표의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착오, 법률 행위, 취소, 배제설, 경합설, 대법원, 약관

문단 1 위조품 거래의 법적 해석

1) 매매된 미술 작품이 진품이 아니라 위조품임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위조품을 판매했다면, 매도인은 민법상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뿐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판매자[→ 매도인]가 위조품을 알고 구매자[→ 매수인]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민법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된단다.

① 매도인이 위조품임을 알고 속여서 거래한 경우

민법상 손해 배상의 책임, 형법상 사기죄

[참고] 어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민법은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실제로 끼쳤는지를 따진다면, 형법은 그 행위의 자체의 선악(善惡)을 따진다. 따라서 1)의 경우와 같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형사 책임을 진다고 민사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고, 민사 책임을 진다고 형사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니다.

2) 이와 달리 양 당사자 모두 위조품을 진품으로 잘못 알고 거래했다면 형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매매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와 관련된 민법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 1)의 경우와 구분하여 이해해야겠다. 다만 해당 작품이 위조품임을 매도인조차 몰랐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 책임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문단 2 매매 계약의 해제

1) 위조품의 경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인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매 계약에 관련된 규정인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하자가 중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 목적물이 매수인의 기대와 달리 위조품인 경우에는 그 하자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것으로 봐야겠다. 이때 매수인은 이미 이루어

진 계약이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상실시켜서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 해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한마디로 '해제'는, 매도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권리인 것이다.

3)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반환하여 원상회복해야 한다.

➡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는 만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작품을 돌려줘야 하고[→ 매매 목적물의 반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작품의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대금의 반환].

4) 아울러 매도인은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손해 배상의 책임은 문단1-1)의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문단1-2)에서 '해제'가 적용될 때에도 발생하나 보다. 다만 똑같은 손해 배상 책임이더라도 그 근거는 다른 만큼 구분하여 이해해야겠다.

②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조품인지 모르고 거래한 경우

하자 담보 책임

중대한 하자○:

계약의 해제, 손해 배상의 책임

중대한 하자 × : 손해 배상의 책임

[참고] 구체적으로는 문단1-1)의 손해 배상 책임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다만 문단2)의 손해 배상 책임은 하자 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에 해당한다.

문단 3 해제권의 제약 조건

1)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계약 성립 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본인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 매수인이 내키는 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다. 쉽게 말해서 매수인이 구매할 작품이 위조품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또한 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권**은 하자를 인지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매수인이 구매한 작품이 위조품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까먹고 있다가 10년 후에 "아 맞다! 이거 위조품이지!" 하고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날벼락일 것이다. 따라서 해제권 행사 기간에도 제약이 있다.

3) A가 B로부터 **미술품을 인도받고**[→ 계약이 성립하여 이행되고] **2년이 지나** 진품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자를 인지하였을 때],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 버린 뒤에는 A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① **주목** 이때 B로부터 미술품을 인도받은 지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A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해하였다면 곤란하다. '하자를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3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어쨌든 '하자를 인지하고 나서부터 6개월까지'가 해제권의 행사 기간이기 때문이다.

문단 4 매매 계약의 취소

1) 그런데 민법 제109조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 즉 위조 여부 혹은 가격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❶ **맥락 짚기** 문단2, 3에서는 계약의 '해제'를 다루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논의의 방향이 계약의 '취소'로 전환되고 있다.

2)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의 진의가, 겉으로 드러난 사실[→ 표시]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하는데,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 가령 표의자가 사촌 동생에게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사 주겠다고 말하였다면 그게 '표시'다.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사실 장난감을 사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그건 '진의'다. 이렇게 속마음과 드러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한단다.

▶ 다만 착오는 그중에서도 특수하다.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의 상황에서 위조품을 매수한 A의 '표시'는 '위조품을 구입함'이고 '진의'는 '진품을 구입함'이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만, A 스스로는 의사와 표시가 '진품을 구입함'으로 일치할 것이라 생각할 테니 말이다.

3) 민법은 계약이나 유언 등과 같은 **[법률 행위]**를 착오에 의해 행한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무효화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인 **[취소]**의 권리를 표의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이렇게 A의 경우처럼 착오에 의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취소권'이란단다.

▶ '해제권'과 구분해서 이해해야겠다. 물론 이미 이루어진 계약이 없었던 일로 된다는 점에서는 '해제'나 '취소'나 다르지 않다. 다만 착오에 의한 취소의 경우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해제와 달리 계약이 아닌 법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챙겨 둬야겠다.

②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조품인지 모르고 거래한 경우	
하자 담보 책임	착오
중대한 하자○: 계약의 해제, 손해 배상의 책임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 계약의 취소
중대한 하자× : 손해 배상의 책임	

4) 다만 미술품의 매수 시에 착오를 한 A가 매수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 그런데 A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단다.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는 지점이니 주의해야겠다.

5) 취소권 행사는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

❶ **맥락 짚기** '취소권'의 제약 조건이다. 문단3에서 설명한 '해제권'의 제약 조건과 비교하여 이해해야겠다.

▶ 해제권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취소권은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훨씬 더 여유로운 제약 조건이다.

6) …… **[배제설]**은 이와 같이 비교적 긴 취소권 행사 기간이 매매 계약의 조속한 확정을 저해한다는 판단하에 하자 담보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소권이 배제된다고 본다.

▶ 물론 '배제설'이 취소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령 해제권은 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취소권은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해서 가능하다.

▶ 이때 A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지니, 이때부터는 다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면 오해이다. 애초에 '배제설'은 "계약 취소권을 3년이나 부여하는 것은 계약의 조속한 확정을 저해하니, 위조품임을 인지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주장이다.

▶ 따라서 '배제설'에 따르면 A는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해제권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 행사 기간을 놓쳐서 계약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취소권은 애초부터 행사할 수 없었다.

❶ **주목** '배제설'은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제권만,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소권만 적용하자는 주장이었다.

7) 반면 **[경합설]**은 하자에 관한 조항과 착오에 관한 조항이 법률 제정의 취지, 성립 요건, 효과 등에서 서로 다르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 '배제설'이 계약의 조속한 확정이 저해된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주목하였다면 '경합설'은 애초에 해제권과 취소권이 별개의 권리라는 원론적인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❶ **주목** '경합설'은, 하자 담보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착오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매수인이 해제권, 취소권 중 뭘 행사하든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 따라서 경합설에 따르면 A는 6개월이 지나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여전히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다. [물론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해제권, 취소권 중 하나를 아무거나 행사할 수 있었다.]

문단 5 판례의 입장

1) 미술품이 위작임을 판명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근래에는 미술품 매매에서 취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도 경합설에 따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할 경우에는 위조품임을 확인하고 나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제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그런데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배제설에 따라 해제권만을 인정하게 되면, 많은 매수인들이 원치 않는 계약의 결과를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취소권의 행사 역시 인정하는 '경합설'을 취한다.

2) 다만 경합설을 취하더라도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일어났다면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 문단(3-1)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때 '중대한 과실'의 기준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다. 가령 표의자가 미술관의 큐레이터일 때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와 미술에 대한 견식이 없는 일반인일 때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는 다를 수밖에 없겠다.

3) 이 단서 규정은 본래 상대방의 이익[→ 여기서는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그렇겠다. 설령 매수인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그 착오를 악용하였다면, 더 이상 매도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수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단다.

4) 또한 양 당사자가 계약 시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는 않기로 약정했을 때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단,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의하여 고객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관의 내용은 약관 규제법에 따라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간주되어 무효로 처리된다.

➡ 어렵지 않다.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을 때에는 ‘경합설’을 따르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러한 약정이 약관에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① 매도인이 위조품임을 알고 속여서 거래한 경우	
민법상 손해 배상의 책임, 형법상 사기죄	
②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조품인지 모르고 거래한 경우	
하자 담보 책임	착오
중대한 하자 ○ : <u>계약의 해제</u> , 손해 배상의 책임	법을 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 <u>계약의 취소</u>
중대한 하자 × : 손해 배상의 책임	
배제설	
<u>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할 때에는</u> <u>해제권</u> 만을 행사할 수 있음	<u>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때</u> <u>에만 취소권</u> 을 행사할 수 있음
경합설	
<u>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가 모두 성립할 때</u> <u>해제권과 취소권</u> 을 행사할 수 있음	

[31~34] 고전소설

「유문성전」 작자 미상

작품 평가

이 작품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의 중국을 배경으로 한 군담 소설이다. 주인공 문성과 춘영의 삶은 영웅의 일생을 잘 보여 주는데, 특히 여성이면서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 새 왕조를 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춘영의 모습은 여성 영웅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는 실제 역사에서 명나라를 건국한 인물 주원장이 우리나라 황해도 출신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수록 지문은 문성과 춘영이 주원장의 핵심 참모인 유기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앞부분 줄거리] 유문성은 아내 이춘영을 도둑(= 주(州)의 군무를 맡아보던 군사령관)으로 삼아[→ 사령관이 될 만큼 춘영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인데, 본래 천상의 선녀였다가 죄를 지어 세상에 유배당한 춘영의 출생담과 군사적 활약상을 보면 그가 여성 영웅의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황위를 찬탈한 달목을 치러 나서는데, 새 왕조를 세우려는 주원장[→ 명나라의 시조]의 군대와도 전투를 벌인다. 주원장이 부하 유기[→ 주원장의 핵심 참모이자 명나라의 개국 공신]를 유문성의 진영에 잠입시킨 시각에, 유문성은 스승 일광 도사가 나오는 꿈을 꾸다.

유 원수 반갑기 측량없어 급히 내달아 보려 할 즈음에 놀라 깨니 남가일몽(= 부질없는 한바탕 꿈)이라. 심사 망연하여 이 도둑을 깨우니, [이도둑에] 일어났으며 왈,

“홀연 호접(= 호랑나비)을 따라가니 일광 도사가 생시같이 이르시되, ‘도둑은 그사이 무양(=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한가.’ 하시고, ‘평생에 품은 원을 이제야 비로소 설치(= 부끄러움을 씻음)할 날이 머지아니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하시고, 또 가로되, ‘그러나 지금 자객(刺客)이 들어오니 바빠 일어나 살펴 조심하라. 자객이 변하여 세객(說客, 말로써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리려 다니는 사람)이 되리라 [→ 이후 유기가 ‘자객’으로 왔지만 결국 유 원수가 조연을 청하는 ‘세객’이 된 서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부정적 상황이 긍정적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부디 마음을 돌이켜 주 씨를 도와 천의(= 하늘의 뜻)를 거역지 말라[→ 일광 도사는 앞일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유 원수 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 준다.], 길이 충충하여(= 몹시 급하고 바빠) 가노라.’ 하거늘, 반겨 깨달으니 한 꿈이라. 한 말도 다시 묻지 못하고 섭섭함이 측량없나이다.”

“내 역시 몽사(夢事) 그러하니[→ 유 원수도 이 도둑과 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비록 몽사를 믿지 못할 일이나 두 사람의 몽사 이렇듯 분명하니 무심치 아니하도다.”

하고 작작히(= 적당히) 수작(= 서로 말을 주고받음)하더니, 문득 창외에 음풍이 소슬하며 인적이 있거늘, 도둑이 대경하여 칼을 들고 밖에 나서며 왈,

“만일 세객이 변하여 자객이 되면 사생을 결단하리라.”
하고 좌우를 살펴본즉, 월하에 한 대장이 비수를 품고 공중으로 내려

와 장대(=장수가 올라서서 명령, 지휘하던 대) 앞으로 자취 없이 들어오거늘,
이 도독이 칼을 들고 호령 왈,

“네 어떤 사람인데, 이 깊은 밤에 남의 진중에 방자히 들어오니, 빨리 성명을 통하라[→ 이름을 밝히려는 거다.], 만일 기망(=남을 속여 넘김)하면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라.”

유기가 창문 아래 서서 쳐다보니, 촛불 아래 옥 같은 장수[가] 화양건을 쓰고 몸에 운용단전포를 입고 허리에 칠자단전대를 띠고 추상 같은 장창을 들었으니, 기상은 태산을 끼고 복해를 뛰는 듯하며 눈은 새벽 같고 눈썹은 팔각산을 그린 듯하여 화색은 유유하고 태도는 정정하니, 진실로 만고절색이요 세상의 기남자라[→ 이 도독 즉 춘영의 외양을 묘사하는 가운데 그 비범성을 드러내고 있다.], 처음 보매 반갑고, 두 번 보매 두렵고, 세 번 보매 탐탐하매(=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니) 해할 마음이 전혀 없고, 자연 감동하여 허리를 굽히고 길게 읊하여 왈,

▶ 유기가 처음에는 춘영을 해칠 마음이 있었지만, 춘영의 모습과 그 우러나오는 기품에 탄복하고 매료되어 결국 마음으로 그에게 숭복하고 만 것이다. 유기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진(陣)이 유 장군 진이 아니오니까, 유 장군과 평생 좋아하는 벗일리니, 소장이 도적에게 잡혀갔거니와 전정(前情)을 잊지 못하여 도주하였삽더니, 저다지 노하사 죽이고자 하시니 인심 난측(人心難測,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움)이로다.”

▶ 유기는 지금 이 도독을 유 장군[→ 유 원수]으로 착각하고, 친한 척을 하고 있다. ‘평생 좋아하는 벗’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화를 내며 죽이려 하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다.

(중략)

이 도독이 더욱 노하여 왈,

“네 종시 세객으로 칭탁(=사정이 어떠하다고 핑계를 댈)하니 크게 괴상하도다. 만일 세객일진대 밝은 낮을 버리고 밤을 좇아 왔으며, 또한 소매 가운데 철퇴가 무슨 일고.[→ 소매 안에 무기를 숨기고 있으니 자객이 아니고 뭐냐는 말이다.] 공명과 천금도 중커니와[→ 공명을 세우거나 부귀를 얻기 위해 이런 자객 짓을 하는 거겠지], 목숨인들 아니 중할쏘냐. 바빠 목을 늘어 칼을 받으라.”

▶ 세객이라든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찾아왔어야 함을 지적하며 유기의 행동이 그의 말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호령이 추상같은지라, 유기 그제야 비수를 던지고 실정(=실제의 사정이나 정세)으로써 말하여 왈,

“세상 사람이 모두 무지하온들 어찌 이러한 영웅을 해하리오. 원컨대 장군은 의심치 마옵소서[→ 유기는 여전히 춘영을 유 원수로 착각하고 있다.], 소장이 처음에는 해할 마음도 있고 속일 마음도 있더니[→ 비로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장군의 기상을 보오니 진세(=지저분하고 속된 인간 세상)의 영웅호걸이 아니라. 부귀와 복록이 천하를 진동할 것이요,[→ 인간계의 클래스가 아니라는 말이다. 상대에 대한 극찬이다.] 남에게 해 입을 용모 아니온즉, 이럼으로써 항복하옵나니, 용렬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흥중에 품은 뜻을 말하고자 하나니[→ ‘세객’으로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바라건대 장군은 익히 생각하옵소서.”

도독이 그 지극한 거동을 보고 그제야 당하에 내려 맞아 답례 왈,
“처음에 홀대함은 장수에 초면이라, 허물하지 마옵소서.”

▶ 이미 몽사로 상황을 알고 있던 춘영도 전쟁 중에 있는 장수로서 초면인 낯선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고 장대로 영접하니, 유기 처음에는 도독의 풍도를 보고 황홀난측(=매우 황홀하여 헤아리기 어려움)하여 유 장군으로 알았더니, 장대에 들어가 뜻밖에 유 장군을 대하니[→ 진짜 유문성을 보게 되니] 더욱 황망하여 총망히 예하고, 몸 둘 곳을 아지 못하여 지성으로 공배(恭拜, 공손히 절함)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상을 살펴보니 짐짓 선풍 옥골[→ 신선의 풍채와 옥같이 희고 깨끗한 골격이라는 뜻으로 남달리 뛰어나고 고결한 풍채를 이르는 말이다.]이요 만고 영웅이라. 자탄하여 왈,

“천상(天上)의 각성(角星, 하늘의 스물여덟 별자리 중 첫째 별자리에 있는 별들)이 인간에 적거(謫居)하였도다. 세상에 이러한 영웅이 있거늘, 천하 어찌 분분치(=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지) 아니하리오.”

▶ 세상에 뛰어난 영웅들이 여럿이라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즉 유 원수의 능력이 유기 자신이 섬기는 주원장에 못지않음을 인정하는 말이다.

기거와 행보를 가장 조심하고 말씀을 나직이 하여 왈,

“소장의 성명은 유기요, 거주는 파능이옵더니, 족하(=같은 또래 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말)의 높은 이름은 이미 들었삽더니, 천만의 외에 존안을 뵈오니 광채 남달리 눈부시옵나니.”

원수 또한 유기의 용모를 보니, 단정한 중에 의기 유여[→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가 모자라지 않고 넉넉함을 이르는 말이다.]하여 흥중에 무궁한 조화를 감추었으니 범상한 사람이 아닐러라. 공손히 답례 왈,

“선생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더니, 하늘이 지시하사 오늘 서로 대하오니 과연 나의 복인가 하나이다. 천수(天數, 하늘이 정한 운명)를 일러 어두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 유기에게 조언을 구하는 말로, 결국 일광 도시의 예언대로 유기를 ‘세객’으로 대하고 있는 거다. 유 원수가 유기를 통해 주원장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유기 대 왈,

“이제 천하 분분하여 윤리와 기강이 사라져 간신이 반역하니 생민이 도탄(=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탄다는 뜻으로, 몸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을 이르는 말)에 든지라[→ 유 원수가 주원장과 힘을 모아야 할 대의명분을 제시한 것이다.], 주 원수께서 삼고초려(三顧草廬)하므로[→ 주원장이 유기 자신을 여러 번 찾아와 참모로 초빙하였다는 거다.] 몸을 화살과 돌에 드러내어[→ ‘화살과 돌’은 전쟁터를 가리키는데, 전쟁터에서 어떤 괴로움이나 위험한 일도 피하지 않고 무릅쓰는 뜻이다.] 망령되이 세상에 분주하다가[→ 자신의 행동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다.], 이제 장군의 승세한 방법을 보니 손오(孫吳, 중국 병법가인 손무와 오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에 지남이라.[→ 손오보다 뛰어나다는 거다.] (중략) 이러하므로 죽기를 무릅쓰고 궁진(=사람을 만나러 몸소 나아감)하여 왔나이다. 만일 주 원수와 더불어 동심동모(同心同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도모함)할진대 진정을 통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품은 뜻을 행할까 하였삽더니, 이제 장군을 보오니 단정한 위인이라, 도리어 문을 나가 도망치 못할까 하나이다.”

▶ 유문성에게 주원장과의 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만일 연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객으로 온 원래의 뜻대로 유문성을 해치려 했으나 그럴 일은 없겠다고 말하고 있다.